



해외식품소식

調 査 部

설사에방용 우유개발

— 젖소몸에서 면역항체 만들어 —

메릴랜드대학 의학학교의 캐럴태킷 박사팀은 최근 설사의 원인박테리아에 대한 抗體가 충분히 함유된 우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임신한 암소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주입, 이에대한 면역항체를 생성토록 했다. 연구팀은 對설사 항체가 풍부한 암소의 初乳(産後 최초의 우유)농축액을 10명의 지원자에게 설사유발 박테리아가 함유된 물과함께 마시도록 했다.

또다른 10명에게는 물과함께 박테리아에 면역되지 않은 소의 초유를 마시게 했다. 그 결과 면역된 초유를 마신 10명은 아무도 설사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면역되지 않은 초유를 마신 10명중 9명은 설사병에 걸리는것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뉴욕거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와 의사들의 단체는 AIDS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크립토스포리디아 설사증 치료를 위해 그원인 박테리아에 면역된 우유를 개발, 실험중이다.

中共, 국제 原糖市場 “큰손”

— 국내 消費量 年740만t, 300만t이상 輸入으로 충당 —

중공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원당 수

요증가로 중공이 세계 원당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런던의 1차상품 거래상들이 밝혔다.

상품거래상인 자르니코프의 경제전문가 크리스토퍼패크氏는 최근 중공의 원당소비가 3~4년전에 비해 20%정도 늘어난 연간 7백40만 톤을 넘어서고 수입도 3년전의 3배수준인 300만 톤을 초과하는 등 중공이 세계 원당시장의 새로운 역할 담당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당거래 중개상인 GNZ의 브렌다설리번氏도 중공이 얼마전 12만톤의 원당을 사들이기 위해 그에해당하는석탄을팔았다며세계원당 시장에서 중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원당거래상인 ED&F맨氏의 1차상품 전문가인 파리에 브롬필드氏는 최근 세계원당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중공의 원당수입 증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브롬필드氏는 런던시장에서 1월말께 파운드당 10센트선을 넘어섰던 원당값이 3월중순께 파운드당 8센트선으로 떨어진것도 중공이 한때 원당매입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중공이 원당매입을 재개하자 최근 원당값은 9센트선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브롬필드氏는 중공이 최근에는 런던은 물론 아시아및 뉴욕시장에도 매입손실을 뺀쳐 아시아원당시장은 올해90만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뉴욕시장은 중공의 참여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전문가들은 올해세계 원당수요도 지난해보다 4%많은 1억 7백70만 t에 달하고 가격은 최고 파운드당 30센트선까지 올라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人蔘은 傳統的 만병통치藥

— 中共학자들 첫國際 학술회의서 主張 —

인삼에 관한 첫 국제학술토론회가 6월초 중공에서 열렸다. 중공 위생부와 스위스 제약회사 파르마톤 자社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토론회에는 중공의 중의연구원 및 의학과학원소속 전문가들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 유

럽의 약리학자와 기타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 한국과 중공 등 동북아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이름난 인삼의 약효에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중공측 전문가들이 주장한 한결같은 결론은 인삼의 약효는 미신도 신화도 아닌 예로부터 자연과학에 의해 발견되고 입증된 것이라는 것.

중공측 전문가들은 인삼을 달여 우려낸 정기나 추출물은 심장마비등 심장질환예방, 노화방지 암환자의 수명연장 정력보강등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비해 유럽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삼의 만병통치력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페테에너지로트 교수는 인삼이 RNA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며 심장의 산소수송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발표함으로써 인삼의 약효를 인정했다.

중공의 의과학원의 시아오페이젠 교수는 중공의 인삼생산량이 지난 57년 71.7톤에서 지난 85년에는 1천4백61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세계인구의 고령화추세를 고려하면 인삼산업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美 곡물시세 연일 급등

— 콩·옥수수등 異常가뭄... 가공식품값도 들먹 —

美중서부곡창지대에 몰아친 약 50년만의 가뭄으로 대두, 옥수수, 소맥등 주요곡물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美시카고곡물거래소의 시세동향을 보면 대두의 경우 지난연초 부셸당 6백10~6백20센트 수준에서 4월에는 10%이상 오른 6백70~6백80센트수준으로 올라섰고 5월 들어서는 7백센트를 넘기 시작했다.

특히 이달들어 급등세가 지속, 부셸당 8백센트를 넘었고 15일현재 9백20센트를 기록하는 등 연일 최고시세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연초가격에 비해 무려 50%나 상승한 수준이며 6월에 들어서만도 20%나 오른 시세이다.

옥수수와 소맥도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옥수수는 지난연초 부셸당 1백91센트였던 데서 2월들어 2백센트를 넘어섰고 현재 부셸당 2백79.5센트로 연초에 비해 46%의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맥도 연초에는 부셸당 3백30센트수준의 시세를 나타냈으나 현재 3백78센트로 14.0%나 상승했다.

이에따라 대두는 약4년반만의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옥수수는 3년만에, 소맥은 4년만의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세동향은 농업불황에 따른 수확감소등으로 곡물수급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올들어 지난 34년이후 54년만에 나타난 이상 가뭄이 곡물시세 급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식및 채권시장의 투기자금이 곡물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세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상가뭄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 조기수확하는 옥수수의 경우 수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대두·소맥도 수확이 큰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곡물시세급등은 곡물가공 식품가격에도 벌써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리얼(인스턴트 곡물식품), 베이비푸드, 식물성마가린등 가공식품이 5~10%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이며 가축용 사료가격 상승은 육류품가격 인상도 물고을 전망이다.

